

한국전쟁 시기 '중국군'의 참전과 동원 유형 및 구성에 관한 연구

진탁(陳卓)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한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한국근현대사 전공
jintak1988@hotmail.com

- I. 머리말
- II. 중국군의 한국전쟁 참전 결정과 국내의 반응
- III. 중국군의 동원 유형 및 구성
- IV. 맺음말

I. 머리말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중국군은 같은 해 10월 19일 ‘항미원조, 보가위국(抗美援朝, 保家衛國)’의 기치를 내걸고 ‘중국인민지원군(中國人民志願軍)’의 이름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전쟁이 지속된 2년 9개월 동안 중국에서 총 240만여 명의 병력이 압록강을 건너 전쟁에 투입되었다.¹⁾

이 글에서는 중국군의 참전과 동원 유형, 구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전쟁 중국군의 참전에 관한 한국의 국내 연구는 주로 중국군의 참전원인 및 결정과정²⁾, 중국군의 참전 및 북중관계³⁾, 중국군에 속했던

- 1) 『抗美援朝戰爭衛生工作總結·衛生勤務』에서는 한국전쟁 기간 중국군의 누적 참전군 인수가 190만 명이었고, 1953년 7월 정전 무렵에 중국군이 최대 규모인 120만 명에 도달하였다고 지적하였다(中國人民解放軍總後勤部衛生部, 『抗美援朝戰爭衛生工作總結·衛生勤務』, 人民軍醫出版社, 1988, 315-316쪽). 그러나 최신 중국정부에서 참전인원, 민병, 그리고 전사자에 대해 ‘전쟁 동안 총 240만 명이 입북하여 참전했고, 70여만 명의 민병 및 노동자들이 전방 지원하러 입북하였고, 20만 명 가까이 전쟁에서 전사하였다’고 통계하였다. 2009년 10월 중국 국무원총리 온가보(溫家寶), 2010년 10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곽백웅(郭伯雄), 2015년 10월 중공중앙서기처 서기 유운산(劉雲山)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신화사(新華社)에서 발표한 공식보도에서 모두 앞의 통계 결과를 이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 평안남도 회창군에 위치한 ‘한국전쟁 참전 중국인민지원군사망자묘역’이 있는데 참전했던 240만 명 중국군을 기념하기 위하여 계단 총 240개를 설계하였다고 한다.
- 2) 이재석, 『한반도 분쟁과 중국의 개입』(선인, 2012); 김경일,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기원: 한중관계의 역사적 지정학적 배경을 중심으로』(논형, 2005); 김동길,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원인 연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7권 2호(2016); 김동길·박다정,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후 및 한국전쟁 초기, 중국의 한국전쟁과 참전에 대한 태도 변화와 배경」, 『역사학보』 225권(2015); 김동길, 「한국전쟁 초기 중국군 조기파병을 둘러싼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의 동상이몽」, 『한국과 국제정치』 30권 2호(2014); 김옥준, 「중국의 한국전 참전에 대한 전략적 고려: 북한의 남침개시부터 지원요청까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16권 1호(2013); 이완범, 「6·25전쟁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중국에 미친 영향」, 『군사』 63권(2007); 김옥준, 「중국의 한국전 참전이 중국 국내정치통합에 미친 영향」, 『대한정치학회보』 15권 3호(2008); 김옥준, 「중국 ‘항미원조운동’의 대내적 성격과 의의」, 『중국학논총』 23권(2007); 기광서, 「소련의 대북한 군사원조와 중소 군대의 참전문제: 한국전 발발 전후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25권(2006); 조양근,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결정에 대한 일고찰」, 『승실사학』 16권(2003); 김옥준, 「중국의 한국전 참전과 국내정치」, 『국제정치논총』 42권 1호(2002); 이완범, 「모택동의 한국전쟁 개입 연구-자료 해석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3권(2002); 이완범,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중국-러시아 자료의 비교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3권 2호(2000).
- 3) 박실, 『(중국 공문서와 자료로 본) 6·25전쟁과 중국군』(청미디어, 2015); 이세기, 『6·25전쟁과 중국: 스탈린과 마오쩌둥 제압전략』(나남, 2015); 박영실, 『중국인민지원군과 북중관계』(선인, 2012); 박영실, 「정전 이후 중국인민지원군의 대북한 지원과

조선인부대⁴⁾ 등을 중심으로 연구된 바 있다. 또한 중국에서의 연구는 중국의 참전결정과정⁵⁾, 중국군 내의 조선인부대⁶⁾, 중국군의 참전을 둘러싼 미중관계, 중소관계, 그리고 북중관계⁷⁾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필자는 이 글에서 전쟁 발발 당시 정권을 세운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던 중국공산당지도부에서 어떻게 240만 명이나 되는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주목하였다. ‘항미원조, 보가위국’이라는 선전문구 뒤에 숨겨져 있는 중국군이 동원된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지, 중국인들이 군대에 입대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또한 당시 중국군의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조명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우선 한국전쟁 참전과정과 중국 국내의 반응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국공산당지도부에서 전쟁을 위한 대비 및 참전결정이 합의된 과정과 참전에 대한 국내의 반응을 확인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군의 동원 유형 및 구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토지개혁

철수, 『정신문화연구』 29권 4호(2006).

- 4) 엄인호, 『(또 하나의) 한국전쟁: 만주 조선인의 ‘조국’과 전쟁』(역사비평사, 2010); 김재기·임영언, 「중국 만주지역 조선인 디아스포라와 한국전쟁」, 『재외한인연구』 23권(2011); 이재훈, 「1949-1950 중국인민해방군 내 조선인부대의 입북에 대한 북중소 3국의 입장」, 『국제정치논총』 45권 3호(2005).
- 5) 沈志華, 「中國出兵朝鮮內幕」, 『黨政論壇(幹部文摘)』 2015年4期(2015); 沈志華, 「俄國檔案解密毛澤東曾拒絕派出志願軍援助朝鮮」, 『蘭臺世界』 2009年3期(2009); 沈志華, 「無奈的選擇中蘇同盟建立的曲折歷程(1944-1950)」, 『近代史研究』 2010年6期(2016); 沈志華, 「斯大林, 毛澤東與朝鮮戰爭再議—根據俄國檔案文獻的最新證據」, 『史學集刊』 2007年第5期(2007); 金東吉, 「三國同謀論分析:朝鮮戰爭起源的再思考」, 『當代中國史研究』 2006年2期(2006); 牛軍, 「越過三八線:政治軍事考慮與抗美援朝戰爭目標的確定」, 『中共黨史研究』 2002年第1期(2002); 楊奎松, 「關於朝鮮戰爭爆發的中國因素問題」, 양규송의 개인 웹사이트(<http://www.yangkuisong.net>) 참조.
- 6) 徐龍男, 「朝鮮戰爭中轉入朝鮮人民軍的中國朝鮮族參戰軍人采訪錄」, 『冷戰國際史研究』 2013年1期(2013); 孟慶義·劉會清, 「中國延邊朝鮮族與朝鮮戰爭」, 『西北民族研究』 2012年1期(2012); 徐龍男, 「中國朝鮮族人編入朝鮮人民軍概況及朝鮮戰爭爆發前後朝鮮人民軍編制體系」, 『冷戰國際史研究』 2010年2期(2010); 徐龍男, 「延邊籍朝鮮人民軍退伍軍人采訪錄」, 『冷戰國際史研究』 2008年3期(2008); 金景一, 「關於中國軍隊中朝鮮族官兵返回朝鮮的歷史考察」, 『史學集刊』 2007年3期(2007).
- 7) 沈志華, 『毛澤東·斯大林與朝鮮戰爭』(廣州: 廣東人民出版社, 2015); 沈志華, 『脆弱的聯盟』(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0); 沈志華, 『中蘇關係史綱』(北京: 新華出版社, 2007); 林利民, 『遏制中國: 朝鮮戰爭與中美關係』(北京: 時事出版社, 2000); 林利民, 「朝鮮戰爭與美國對華遏制政策的確立」, 『史學集刊』 2000年第2期(2000); 楊奎松, 『毛澤東與莫斯科的恩恩怨怨』(南昌: 江西人民出版社, 1999); 沈志華, 「唇齒相依, 還是‘政治聯姻’?—中朝同盟的建立及其延續(1946-1961)」,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 第63期(2009); 沈志華, 「中蘇同盟, 朝鮮戰爭與對日和約問題」, 『中國社會科學』 2005年第5期(2005).

운동, 반혁명분자진압운동 등 정치운동이 활발히 전개된 배경하에 중국군의 동원 유형 및 입대동기를 확인하고, 중국군의 구성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결론에서는 중국군 구성의 특징 및 성격을 확인함으로써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중국군의 명칭에 대해 재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에서는 중국의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인민일보(人民日報)》와 각지에서 중앙으로 제출한 동원에 관한 보고서 등을 주요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외에 최근 중국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국군 참전자의 구술자료를 활용하였다.

II. 중국군의 한국전쟁 참전 결정과 국내의 반응

1. 중국지도부의 전쟁 개입 준비 및 결정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의 남침을 시작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6월 27일 중국의 《인민일보》의 사론에서는 ‘이번 전쟁은 이승만 괴뢰집단에서 발동한 것이라고 하며 미국은 막후에 있는 조종자이다’라고 선전하며 언론부터 장악하려고 하였다. 외교부장 주은래(周恩來)는 이어서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중앙정부성명」에서 미해군을 대만해협에 배치한 행동은 중국영해에 대한 침략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하였다.⁸⁾

그러나 중국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즉각적으로 개입을 결정하지 않았고, 북한도 바로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⁹⁾ 모택동(毛澤東)은 만약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북변방군의 건설에 착수하였다. 1950년 7월 2일, 주은래는 소련주중대사관 대사 로시친(N. Roshchin)과의 회담에서 중국에서 “총 3개의 군단 12만 명의 병력을 심양에 집결하도록 하였고, 만약 미군이 38도선을 넘으면 중국군대가 ‘조선인의 복장’으로 ‘저항’을 하겠다고 했다”고 전하며, 소련의 공군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 물어왔다. 이 소식을 들은 스탈린(I. V. Stalin)은 6일 새벽, 중국 측에서 9개 사단을 북중 국경지역에 즉시 집결시킬 수 있고, 이후 미군이 38선을 넘어올

8) 「朝鮮人民爲위擊退進犯者而奮鬥」, 《人民日報》, 1950년 6월 27일자; 「周恩來外長駁斥杜魯門1950年6月27日聲明的聲明」, 《人民日報》, 1950년 6월 28일자.

9) 박영실, 앞의 책(2012), 86쪽.

시 바로 참전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면서 소련의 공군병력을 지원하겠다고 답장하였다.¹⁰⁾

중국에서의 전쟁 준비는 소련에서의 공군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7월 7일, 모택동이 섭용진(聶榮臻)에게 군대의 이동과 배치, 지휘부서의 조직, 후방 근무조직, 병원(兵員)보충 준비, 정치동원방법 등 다섯 가지 의제를 제시하며,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위의 의제들에 대해 논의해보라는 지시하에 국방문제 1차 회의가 열렸다. 이후 7월 10일에는 주은래가 국방보위 2차 회의를 소집하여 1차 회의에서 만들어진 초안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고 본격적으로 동북변방군을 편성하기 시작하였다. 7월 13일,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동북변방보위에 관한 결정(關於保衛東北邊防的決定)」을 발표하여 동북변방군을 편성하였다.¹¹⁾ 동북변방군은 중국인민지원군의 전신이었고, 초창기 병력은 무려 25만 명이였다.

변방군을 편성하는 초기에는 ‘대비하기만 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備而不用)’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전이 되면서, 주은래는 8월 26일에 있었던 동북변방군 준비 회의에서 북한을 도와주는 것은 “조만간 현실이 될 것이다(即將變成現實)”라고 한 뒤 “충분히 대비하여 시작부터 승리를 거두자(充分準備 出手即勝)”고 하였다.¹²⁾ 8월 31일에 그는 11개 군(36개 사단), 60만 명에 달하는 규모의 동북변방군을 3선 배치의 형식으로 편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3병단(제42군이 포함됨)을 제1선, 제9병단을 제2선, 제19병단을 제3선으로 하여 제1선 군대가 전쟁에 파견되면 제2선 군대가 제1선 군대의 주둔지로 복상하고 제3선 군대가 제2선 군대의 주둔지로 이동하여 훈련을 강화하고 참전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¹³⁾ 9월 3일 주은래가 동북변방군 강화계획을 보고하여 동북변방군을 36개의 사단, 70만 명으로 증편시키겠다고 밝혔고, 이어서 9월 6일에 모택동과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제50군을 동북변방군에 편성시켰다.

10) 沈志華, 「代序 蘇聯與朝鮮戰爭-俄國解密檔案中的歷史真相」, 『朝鮮戰爭: 俄國檔案館的機密文件』(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2003), 14쪽.

11) 中共中央文獻研究室, 『周恩來年譜(1949-1976)上卷』(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7), 158쪽.

12) 中共中央文獻研究室, 『周恩來軍事文選』(北京: 人民出版社, 1997), 43-50쪽.

13) 위의 책, 51쪽.

모택동과 주은래는 전쟁에 개입하는 것에 적극적이었지만, 중국지도부 전원이 전쟁의 개입을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모택동은 한국전쟁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그 당시 중국의 지도부에서 출병을 주장한 자가 '1.5인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¹⁴⁾ 1950년 9월 초에 중국주북한 참사관 시성문(柴成文)이 보고하러 귀국했을 때, 임표(林彪)는 그를 불러서 전쟁의 정세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다. 임표의 질문의 중점은 “만약 전쟁에서 변수가 생겨 우리가 출병하지 않게 된다면 그들을 빨치산투쟁으로 돌리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었다.¹⁵⁾ 주은래의 군사비서를 담당했던 뇌영부(雷英夫)의 회고에 따르면, 임표는 당시에 “인구가 몇 백만 명밖에 되지 않는 북한을 구하기 위해 5억 인구가 있는 중국을 희생할 수 없다”고 하며 “우리는 장개석(蔣介石) 국민당 군대와와의 전쟁에는 승산이 있지만 미국과의 전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또한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원자폭탄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 기반도 튼튼하다. 미국과 맞서다가 미국이 중국에 원자탄을 투하하거나 혹은 군기를 출동하여 대규모 포격을 감행한다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라며 출병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출병을 해야 한다면 ‘출이불전(出而不戰)’의 전략으로 군대를 한반도의 북쪽 지역에 배치하고 정세를 지키기만 하면서 되도록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건의하였다.¹⁶⁾

1950년 9월 15일, 미군은 인천상륙작전을 성공하여 전세를 역전시켰다. 김일성이 소련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소련에서는 전쟁에 직접 개입하기를 회피하였고, 중국 측에 전쟁에 참전할 것을 독려하면서 북한에 있던 소련인들의 철수를 서둘렀다.¹⁷⁾ 이런 상황에서, 김일성은 9월 말에 박일우(朴一禹)를 안동(安東)에 보내 동북변방군의 지도자들과 만나 인민군이 직면하고 있는 정세를 알리면서, 중국의 출병을 요청하였다.¹⁸⁾ 스탈린은 10월 1일에 모택동에게 전문을 보내어 중국군의 직접 참전을

14) 사철(師哲)과의 인터뷰에서 모택동은 한 사람은 모택동 본인이고, 0.5사람은 주은래라고 표현 적이 있다고 한다.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The Making of the Sino-American Confrontation*(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 281.

15) 심지화의 시성문(柴成文)과의 인터뷰(2000년 9월 12일)에서 발췌. 沈志華, 「林彪爲什麼沒有出征朝鮮?」, 『各界』 2013년 2기(2013), 18쪽.

16) 宋連生, 『抗美援朝再回首』(昆明: 雲南人民出版社, 2002), 222쪽; 徐焰, 『毛澤東與抗美援朝』(北京: 解放軍出版社, 2000), 101-102쪽.

17) 박영실, 앞의 책(2012), 87쪽.

18) 洪學智, 『洪學智回憶錄』(北京: 解放軍出版社, 2000), 418-419쪽.

권유하였고, 같은 날 김일성은 북한 주재 중국대사인 예지량(倪志亮)을 통해 모택동에게 중국의 신속한 참전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하였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중국은 한국전쟁에 출병하여 직접 개입할지에 대한 여부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전쟁 개입 여부에 대한 지도부 내부에서의 의견차가 컸기 때문에, 지도부에서는 1950년 10월 2일, 10월 8일, 10월 13일, 총 3회에 걸쳐서 출병 여부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었으나 모두 통과하지 못하였다. 10월 18일에 가서야 중공중앙에서 출병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그 다음 날인 19일에 동북변방군 제13병단 산하의 제40군단이 먼저 압록강을 건너면서 중국군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개입하게 되었다. 중국의 참전 결정은 소련-북한 관계와 내부적인 상황인식의 복합적인 결과였으며 국력의 단순한 소모라기보다는 소련으로부터 물자를 확보하여 독립을 담보하려는 '자기보전'적 의도의 혁명전략을 운용한 결과였다.¹⁹⁾ 한편, 참전을 계기로 당시 중국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정치운동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였다.

2. 중국 국내에서의 참전에 대한 반응

앞서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는 중국의 참전 결정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북중 간의 특별한 혈맹적 동지관계²⁰⁾, 일본의 강화와 미국의 즉각적 개입, 중국 자체의 판단, 북한의 적극적인 간청과 소련의 권고²¹⁾, 미국과의 전쟁이 불가피하므로 이왕이면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중국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²²⁾, 소련과 공산주의사업에서의 분업, 신생공산당정권에 대한 보호²³⁾ 등의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박영실은 이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종합해 중국의 참전원인을 중국의 안보 문제 및 국내 상황, 동아시아 지역 상황, 북한의 적극적인 참전 권유, 그리고 소련의

19) 이완범, 앞의 논문(2007), 202쪽.

20) 和田春樹, 『朝鮮戰爭』(東京: 巖波書店, 1995), 38쪽; 이종석, 『북한-중국관계(1945-2000)』(선인, 2000), 159쪽; 박두복 편저,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원인』, 『한국전쟁과 중국』(백산서당, 2001), 176쪽.

21) 이완범, 『중국인민지원군의 한국전쟁 참전 결정』, 박두복 편저, 위의 책, 246쪽.

22) 이종석, 앞의 책, 160쪽.

23) 沈志華, 앞의 책(2015), 328쪽.

참전 권유 등의 네 가지 요인으로 정리한 뒤, 이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²⁴⁾

그러나 중국 국내에서는 공산당지도부의 참전 결정에 대해 찬성보다는 중립이나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중국군 내부에서의 참전에 대한 태도에 대해, 모택동은 1970년 10월에 김일성과 회견했을 당시 한국전쟁에 대해 회고하면서, 중국이 참전하기 직전 동북변방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동북변방군조차도 20%의 군인만이 참전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다른 20%의 군인은 참전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나머지 60%의 군인은 무관심했다고 하였다.²⁵⁾ 당시 많은 군인들은 압록강에서 방어만 하다가 미군이 오면 전쟁을 치르고, 오지 않으면 안 한다고 생각하였다.²⁶⁾ 그러나 군인들은 그 당시에 이미 공산당군대에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중국군 내에서의 전쟁동원은 당시 중국 국내에서 했던 '순망치한(唇亡齒寒)' 선전을 중심으로 한 동원과 비슷하였고²⁷⁾, 특히 국민당 군 출신자에

24) 박영실, 앞의 책(2012), 97쪽.

25) 中共中央文獻研究室, 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編, 「毛澤東會見金日成時的談話記錄」(1970년 10월 10일), 『建國以來毛澤東軍事文稿·下』(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10), 372쪽.

26) 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戰爭政治工作經驗總結編委會, 『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戰爭政治工作』(北京: 解放軍出版社, 1985), 22쪽.

27) 王德君의 구술, 羅塵, 『朝鮮戰場親歷記—志願軍老兵口述實錄』(南京: 鳳凰文藝出版社, 2015), 237-238쪽, 내용 정리. 원문은 다음과 같다.

王德君: “……我們從武漢, 從四川到武漢, 武漢到石家莊旁邊, 部隊在那裏停下來等待發武器, 發了武器1950年到那裏快過年了, 過了個年, 1951年的二, 三月份啊, 我們部隊就直接開到東北了, 到後來才知道(要去抗美援朝的). 我記得是這樣子, 開始重慶到武漢時候在船裏面就宣傳, 在船裏面上政治課, 部隊裏面要求很嚴格的, 開會要討論的. 我們討論美帝國主義侵略朝鮮, 他們部隊是大學生多, 打仗是不行的, 美國人打仗是不行的, 還不如我們中國炊事班的戰士打仗. 後來部隊就講了, 我們這次要去抗美援朝, 我們是志願軍, 我們要保衛祖國, 毛主席提出要抗美援朝保家衛國. 美帝國主義在朝鮮橫行霸道, 強奸婦女, 燒房子和日本人一樣, 燒殺搶掠, 就是朝鮮死了很多人, 燒了多少房子. 平壤市都搞掉了, 平壤市是金日成住的地方, 都搞了, 炮彈打到東北了, 到東北, 打過鴨綠江, 我們要出國要去參加朝鮮戰爭, 這樣子我們才知道真的要出國, 領導講的不是開玩笑. 當時我們抗美援朝我們不懂, 部隊首長給我們宣傳: 小鬼, 叫你回家你回不回? 算了算了, 我說我不回家了, 還回什麼家, 家在哪裏都找不到. 有的人逃掉了也有.”

郭仕高的 구술, 周琇環·張世瑛·馬國正, 『韓戰反共義士訪談錄』(臺北: 國史館, 2013), 188-189쪽 내용 정리. 원문은 다음과 같다.

郭仕高: “……參加抗美援朝戰爭的來龍去脈, 就是說美國那時候跟北韓打仗, 中國共產黨就幫北韓, 我們等於去幫北韓, 原因是北韓過了鴨綠江就是新義州, 江上有兩三公裏的橋, 過了橋就是中國境內, 所以要抗美援朝, 不然的話, 美軍就會一路打到我們中國東北這邊來了, 就是這麼一回事.”

대한 사상교육이 보다 강화되었다고 한다.²⁸⁾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중국군 내에서는 한국전쟁의 참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가 감돌았으므로, 단순히 순망치한의 논리로 군인들을 설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군인들에게는 한국전쟁에 투입하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가 이동하는 과정이나 전쟁에 투입하기 직전에서만 참전 결정을 알려주었다고 한다. 어떤 중국군 포로는 산해관(山海關)을 지나갈 때 사상동원을 강화하여 전쟁에 투입할 것이라고 군인들에게 알려주었다고 하고, 심양지역에 도착할 때쯤에 한국전쟁에 투입할 것임을 알려주었다는 중국군도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대만으로 송환된 중국군 포로들과 중국으로 귀국한 중국군 모두 유사하게 회고하였다.²⁹⁾ 참전 사실을 감추었던 것은 우선 군사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자, 또한 당시까지만 해도 공산당이 군대를 완전히 장악하는데에 무리가 많았기 때문에 군인들의 탈영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도 보인다.

민간에서 전쟁을 두려워하고 반대하는 상황은 더욱 심하였다. 특히 건국 초기 공산당이 장악한 영역은 오늘날 중국지도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사회 및 경제가 안정적이지 않았다. 주은래는 1965년 6월에 탄자니아를 방문했을 때 가졌던 탄자니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국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중국 내의 사상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 당시의 많은 사람들은 ‘중국은 이제 겨우 해방되었으므로, 비록 북한이 이웃 나라이지만 우리를 먼저 쟁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전 결정을 내리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술회하였다.³⁰⁾

1950년 9월 18일, 《인민일보》 편집실에서는 《인민일보》의 독자(讀者)인 장가맹(張家萌)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는 그 편지에서 “평화를

-
- 28) 高文俊의 구술사 周瑋環·張世瑛·馬國正, 위의 책, 279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高文俊: “…… 因為我們年輕, 又是炮兵, 他們共產黨想要將來對他們有點幫助, 因此給我們一點洗腦教育, 希望我們將來成爲他們的一份子. [...] 後來韓戰爆發了, 他覺得我們還有點用處, 另外一個方面, 他覺得把我們這些人留下來很麻煩, 也不能都殺掉, 我們也沒犯那麼大的罪, 當兵的無罪, 我們都是聽著上邊講, 也沒帶過兵, 沒打過仗, 沒殺過人.”
- 29) 李茂仁의 구술, 周瑋環·張世瑛·馬國正, 위의 책, 136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李茂仁: 我們在共產黨那個地方不知道部隊番號, 因為你們是自願入伍的, 但是我們是國軍過來的, 當了俘虜, 找上你, 你就得去, 不一樣.
- 30) 齊德學, 『巨人的較量－抗美援朝高層決策和指導』(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9), 59쪽;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抗美援朝戰爭史』 第1卷(北京: 軍事科學出版社, 2000), 157쪽.

지키자고 했는데 왜 또 전쟁을 지지해야 하느냐”라는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만큼 대부분의 중국국민들이 공산당의 출병계획이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전쟁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³¹⁾

이 당시 중국 국내에서는 참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반응을 보였다.³²⁾

첫째, 전쟁에 대한 거부감과 자국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태도이다.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주장은 ‘장기간의 전쟁이 겨우 끝났고 이제는 쉴 때도 되었는데, 왜 또다시 전쟁을 하는가?’³³⁾라는 것이었다. ‘대만을 아직까지도 수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굳이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에 참전해야 하느냐’며 공산당의 출병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둘째, 북한이 전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무관심이었다. 즉, ‘한국전쟁은 북한의 일이지, 중국과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하거나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거나, 북한이 침략을 당하는 것은 모두 두 나라가 생존을 위해 벌인 경쟁이지, 우리와는 관계없다’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존재하였다.³⁴⁾ 심지어 전쟁 동원 시에 한 공청당원은 청년학도들에게 전쟁의 정세에 대해서 선전을 하다가, 오히려 일부 청년학도들과 지식인들에게서 공산당이 사실을 과장해서 선전함으로써 전쟁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³⁵⁾ 농촌에서도 농민들은 북한과 중국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질문의 답을 들은 후에 너무 멀다고 하거나 농민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른다고 하면서 동원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³⁶⁾

셋째, 미국을 두려워하거나, 숭배 또는 찬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일부 중국국민들은 북한 인민군이 미국과의 전투에서 수세에 몰린 것과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사실 때문에 ‘미국이 무섭다’는 반응을

31) 「戰爭與和平 答張家萌君」, 《人民日報》, 1950년 9월 18일자.

32) 侯松濤, 「中共新聞史研究史料資源的比較討論—以抗美援朝運動為例」, 『青年黨史學者論壇』 제2권 101-128쪽. (2015. 3.).

33) 「沈陽市委關於最近幹部群衆思想動態與動員工作給高崗同志的報告(1950년 11월 6일)」, 『黨的工作』 제64기(沈陽: 中共中央東北局黨的工作編委會, 1950), 43쪽; 侯松濤, 『抗美援朝運動中的社會動員』, 中共中央黨校博士學位論文(2006), 30쪽, 재인용.

34) 「唐山專區抗美援朝運動初步經驗(1950년 11월 29일)」, 《人民日報》, 1950년 12월 12일자.

35) 中共中央華東局, 「北京市關於學生抗美援朝運動情況的報告」, 『鬥爭』 제70기(北京: 中共中央華東局, 1951), 14쪽; 侯松濤, 앞의 논문(2006), 32쪽, 재인용.

36) 於昌隆, 「農村宣傳的幾點體會」, 《人民日報》, 1951년 1월 14일자.

보였다. 이와는 반대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이 미국의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미국을 좋아한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한 당시 중국과 미국 간의 국력 차이가 컸기 때문에 미국의 문화를 선진문화라고 생각하고 미국의 영화나 소설을 읽고 미국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특히 청년학도들이 많았다고 한다.³⁷⁾

유엔군이 인천상륙에 성공해 북한이 전쟁에서 수세에 몰리게 된 이후, 중국 전국 각지,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전쟁에 관한 풍설(風說)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해당 풍설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개 대만과 동북지역의 상황, 한국전쟁의 정세, 세계대전, 그리고 원자폭탄 등에 관한 것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동북지역이 이미 함락되어 미군이 상해에 착륙하였고 국민당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거나 ‘미국이 북한에 원자폭탄 2개를 투하하였기 때문에 올해 겨울 날씨가 특별히 추운 것이다’, ‘중앙인민정부가 이미 서안(西安)으로 이전하여 미군의 전투기 50대가 한중을 폭격시킬 것이다’라는 등의 풍설이 있었다.

당시는 중국공산당이 건국된 직후였기 때문에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으며,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낮아 이런 소문들은 민중의 심리에 큰 영향을 끼쳤다. 산동의 어느 농촌에서는 토지개혁운동을 통해 토지를 얻은 농민이 토지를 수령하러 오지 않거나 새로 지급받은 토지에 농사를 짓지 않으려고 비료를 일부러 쓰지 않은 현상도 나타났다.³⁸⁾ 동북지역의 경우에는 한반도와 가깝기 때문에 온 집안이 아예 동북에서 도망치거나, 남방지역 출신 기술자들 가운데 남방으로 돌아가겠다고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청년노동자나 학생들 중 징병대상이 될 것을 염려하여 공장이나 학교에 가지 않기도 했으며, 일부 당원과 공청단 단원들 중에는 탈당 및 탈단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³⁹⁾ 상해의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많은 공무원들은 소련식 복장을 입었다가 다시 양복으로 갈아입었다고 한다.⁴⁰⁾ 일부 지역에서는 폭동까지 일어나기도 하였다.⁴¹⁾

37) 中共中央北京市委政研室, 『北京市學生抗美援朝運動的報告』(1951년 1월), 『北京工作』 제9기(北京: 中共中央北京市委政研室, 1951); 侯松濤, 앞의 논문(2006), 35쪽, 재인용.

38) 當代中國叢書編輯部, 『當代中國的山東·上』(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9), 103쪽.

39) 中共中央東北局黨的工作委員會, 『東北局關於最近沈陽市各階層動態給中央的報告』(1950년 10월 17일), 『黨的工作』 제64기(沈陽: 中共中央東北局黨的工作委員會, 1950), 19쪽; 侯松濤, 앞의 논문(2006), 37쪽, 재인용.

40) 傅胃湧, 『1949年中國知識分子的私人記錄』(武漢: 長江文藝出版社, 2005), 196쪽.

41) 中共中央中南局辦公廳, 『中南局關於開展大規模的時事宣傳運動的指示(1950. 9. 9.)』,

Ⅲ. 중국군의 동원 유형 및 구성

1. 중국군의 동원 유형 및 입대동기

중국군 동원작업은 반혁명분자진압운동, 토지개혁운동, 항미원조운동 등 전국적인 정치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한국전쟁 참전이 전국적인 대중운동의 전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동인이 될 뿐 아니라 이러한 운동을 전개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중국지도부의 한국전쟁 참전 결정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⁴²⁾

동원하는 과정에서, 참전에 관한 중국군인들의 염려를 없애기 위해 지방정부는 그들과 여러 가지 약속을 하기도 하였다. 그 하나가 군인 가족들의 생계를 정부에서 책임지겠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혹시라도 군인이 전쟁터에서 사망하면 주변 이웃들을 동원해서 군인의 가족을 본인의 가족처럼 잘 보살피주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⁴³⁾ 또한 참전한 중국군이 대부분 미혼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장애인이 되면 정부에서 ‘부인’을 ‘분배’해준다는 이야기까지 있었다고 한다.⁴⁴⁾ 이 외에도 강제로 동원된 중국군도 존재하였다.

필자는 사료 및 중국군의 구술 증언을 정리하여 동원된 유형을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해보고자 한다.

첫째, 중국군 내부에서의 전쟁동원으로 전쟁에 개입하게 된 유형이다. 이런 유형은 크게 국민당군 및 공산당군 출신자로 나눌 수 있다. 국민당군

『中共中央中南局文件輯存』 제4권(漢口: 中共中央中南局辦公廳, 1954), 2280쪽; 侯松濤, 앞의 논문(2006), 39쪽, 재인용.

42) Melvin Gurtov and Byon-Moo Hwang, ed., *China Under Threat: The Politics of Strategy and Diplomacy*(Baltimore: The John Hopkins Univ, 1980), p. 59; 김옥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이 중국 국내정치통합에 미친 영향」, 『대한정치학회보』 제15권 제3호(2008), 26쪽, 재인용.

43) 馬發泉의 구술, 羅塵, 앞의 책, 390-391쪽.

馬發泉: “你去了以後家裏的田沒有人種我們會給你種的, 東西沒人挑我給你挑回來, 你爸爸媽媽沒有柴燒, 我會給你砍來, 就是送你們家來. [...] 鄰居說一人參軍全家光榮, 他說我們鄰居也光榮, 大家都光榮, 大家分到田地了, 打到地主了. 你放心, 你去以後我們會照顧你爸爸, 照顧你媽媽, 他就這樣講, 媽媽都會照顧她的他說, 他這樣講的. 勞動就是生產我們會幫助的. 我們這個就放心了, 家裏好像父母親有人照顧了, 當軍屬也光榮.”

44) 羅塵, 앞의 책, 284쪽.

출신자가 중국군 내에 7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공산당 측에서는 그들 중에 사상개조에 성공한 군인들을 뽑아서 반장이나 소대장을 맡겨 나머지 군인을 인솔하게 하였지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사상교육을 통해 그들을 공산당에 충성하도록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국민당 출신 가운데 일반병사보다는 장교나 사관학교 출신 학생들이 더욱 국민당의 정권을 빼앗은 공산당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들은 공산당에서 필요로 했던 인재였기 때문에 전쟁초기에는 그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았다. 대신 군정대학교에 입학시키거나 철도건설에 투입해 사상교육을 실시한 후에 전쟁에서의 필요에 따라 동원하였다. 사관학교 출신이었던 진익중(陳益中)은 공산당에 재편된 후에, 공산당군대에서 느꼈던 기율과 평등한 문화 때문에 공산당군대에 가입하게 된 이후 공산당에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⁴⁵⁾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교나 사관학교 출신학생들은 공산당의 선전이나 동원에 잘 흔들리지 않았다. 사관학교 출신자인 마복서(馬福瑞)는 공산당이 군대를 동원할 때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그 자리에서 찬성한다는 말밖에 하지 못했다고 회고한 바가 있었다.⁴⁶⁾ 문건우(文建友)는 공산당에서 미국을 적대시하도록 사상교육을 실시한 후에 이용가치가 있는 사람을 군대에서 뽑아갔다고 했다.⁴⁷⁾ 중국군 소력행(蕭力行)은 전쟁 동원을 반대하면

45) 陳益中の 구술, 羅應, 앞의 책, 168-181쪽 내용 정리, 원문은 다음과 같다.

陳益中：“…… 解放以後呢，他們共產黨就不讓我們回家，都留下來，很需要你們。開始學校是國民黨的學校，解放以後到共產黨這邊來了嘛，所以那時候我們都是，那時候學習，學習就是思想換換。[...] 在這裏，咱們感覺共產黨的確同國民黨軍隊不一樣，處事不一樣。具體官兵一致，當官的對兵沒有大罵，第一個，生活一樣，你吃什麼我也吃什麼，沒有高低之分，這個是給我們知識青年一個最大的教育，所以我們參軍當兵，但是我們道路走對了。[...] 那時候軍人家屬待遇，我聽我媽說，那個時候也挺好的，我們家裏是地主階級，分地也給我們弄的好地，房子給我們留下來，都有的。我們在這邊是6月份到的東北，那時候叫邊防軍，出國是10月19號出國的。”

46) 馬福瑞의 구술, 周琇環·張世瑛·馬國正, 앞의 책, 228-229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馬福瑞：“民國39年4,5月份，共產黨決定修築成渝鐵路。[...] 在修築鐵路的過程中，完全與外界斷絕消息，僅有早晨由讀報者閱讀《人民日報》，獲悉一些僅有的信息。長津湖戰役之後，報紙突然發布，中國人民志願軍消滅美軍的第二十四師以及美軍騎戰第一師。在當時得知相關消息之後，雖然自身心中對於共產黨並不認同，但是站在中國人的立場來說，當時心中卻是興奮的，能夠擊敗美國人，能夠俘虜強大的美軍。而中共方面，對於這樣的戰果，也大肆宣傳。當時修築鐵路的工人中，一些幹部也來加以宣傳，以響應抗美援朝，幹部對著工人提出：我們響應抗美援朝好不好？在當時情況下，沒有人能說不好的。我們這些修築鐵路的工人，則隨即接受征召，隨時加入部隊參加抗美援朝的行列。”

47) 文建友(가명)의 구술, 위의 책, 336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투쟁 대상이 되어버릴 것이라는 말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동원 찬성에 서명했다고 하였다.⁴⁸⁾ 이들은 포로가 된 이후에 포로수용소에서 장교대대에 편입되어 수용소 내의 주도권을 잡고 반공운동을 일으켰던 인물들이다.

공산당 출신자 역시 군에서 내린 명령에 따라 참전했다.⁴⁹⁾ 일반 병사들은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자 한 동기가 있었지만⁵⁰⁾, 간부들은 참전을 진급의 기회로 이용하려고 하였다. 공산당 출신 간부들의 참전 시기가 주로 1952년 연말 이후에 집중된 것으로 보아 그들에게 참전이란 생사가 걸린 시련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단련의 기회’였던 것으로 보인다.⁵¹⁾

둘째, 민간 무장조직 출신에서 정규군대로 승격되어 전쟁에 개입하게 된 유형이다. 공산당은 새로운 지역을 점령하면 그 지역의 무장조직을 흡수해왔다. 민병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연스럽게 공산당의 군대로 편입되었다.⁵²⁾ 토착세력의 경우에는 공산당과 전쟁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생포된 자들이다. 그들은 반혁명분자진압운동의 진압 대상이었기에, 한국전쟁 참전이란 그들에게 살아남을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⁵³⁾

文建友：“韓戰爆發後，共產黨把我們從修鐵路的地方調回去，調回成都，立即施以思想教育，共產黨叫做動員。在共產黨來說，有個不同的地方，不恨沒仇的人，叫做仇敵概念，讓你思想上恨美國人，仇恨美國人。”

48) 蕭力行의 구술, 위의 책, 402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蕭力行：“共產黨故意鬥爭給我們看，讓我們心生畏懼。像我們這些知識分子，很清楚最好不要激怒他，當時不簽名不行，因此就簽了名，志願前往韓國。他們說隔壁失火，你一定要去救火。”

49) 胡明申의 구술, 羅塵, 앞의 책, 286-287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胡明申：“不是報名的。領導叫我們到朝鮮，我在那個四川，貴州那邊剿匪，剿了一半多，上邊命令下來了，叫我們這個軍，他講叫我們這個部隊到朝鮮抗美援朝，我們剿匪還沒剿好，還沒幹好就開走了，就這樣。毛主席叫我們去的，你不聽啊，那不行的。跟著黨走嘛，他們怎麼走我們跟他們怎麼走，我是兵，不是幹部。”

50) 王德君의 구술, 위의 책, 240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王德君：“我們當兵的時候，剛剛當兵沒有勳章的，沒有打過仗，沒有什麼，我看別人帶著好多紀念章，有的戴軍功章。在部隊裏面，你參加過哪個戰爭就有哪個紀念章，淮海戰役有淮海戰役的，渡江有渡江的，我們感到很羨慕別人。所以我們部隊領導首長就講，大家不要羨慕，以後你們有機會這樣子，有一次動員會上講，抗美援朝就是立功的機會到了。”

51) 白榮俊의 구술, 위의 책, 187-188쪽 내용 요약 정리. 원문은 다음과 같다.

白榮俊：“動員就是抗美援朝保家衛國，國家支持朝鮮戰爭，大道理保家衛國，對不對？事實上想法比較大了，我們一個軍裏去了一個團的，我們寫自願書。[...] 那時候我們抽老戰士去的，我們21軍去朝鮮的時候是1952年10月份去的，到最後一批去的，朝鮮戰爭基本上已經定下來。大局已經定下來了，就是最後一批，部隊輪番去鍛煉鍛煉。”

52) 郭仕高의 구술, 周琇環·張世瑛·馬國正, 앞의 책, 188-189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郭仕高：“共產黨進入四川之前，地方上訓練民兵，我加入民兵隊伍，在縣裏面訓練。共產黨來時，地方民兵都被收編，我就這樣加入共產黨。”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에서 징병하여 전쟁에 참전하게 된 유형이다. 지방정부는 청년농촌인구를 위주로 전쟁동원을 실시하였다. 선전부서가 마을을 단위로 하여 선전 간부를 현지로 보내 동원 대회를 열고 향미원조 및 참군동원작업을 선전하였다. 선전 당시 토지개혁의 승리 결과를 지켜야 한다는 기본적인 논리였다가 순망치한의 개념을 도입하여 전쟁동원을 하였고, 적극분자(積極分子: 정부나 기관장에서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나서는 사람)들이 분위기를 활발하게 선동하여 일반민중들이 군대에 입대하도록 독려했다.⁵⁴⁾

농촌 출신 중국군들이 전쟁에 개입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적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농민들이 공산당에 단행된 토지혁명을 통해 토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른바 ‘승리성과’를 지키기 위하여 공산당의 전쟁동원에 따라 입대하여 ‘향미원조’를 외치고 한국전쟁에 나섰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필자는 개개인의 상황이 서로 다르기에 당시의 상황을 위의 주장과 같이 단순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중국군 12군단 21사단 92연단 1대대 3중대 2소대 6분대 병사 이아림(李亞林)이 다음과 같이 자신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동기 및 과정을 회고했는데, 이와 같은 동기가 학계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며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나는 토지혁명을 통해서 토지를 받게 되었고, 지주들을 비판하고 진압을 한 이후에 군대에 들어갔다. 그때에는 사회질서가 아직까지 정연하지 못하여 토적(土賊)이 많았다. 당시 동원명령에 대한 정부의 구호는 ‘해방대만, 향미원조, 보가위국(解放臺灣, 抗美援朝, 保家衛國)’이었고 마을에서는 대회를 열어 ‘우리가 받을 받게 되니까 정권을 보위해야 하고, 승리의 성과를 보위해야 한다’고 선전하면서 ‘미제국주의가 우리를 침범했기 때문에 국가가 향미원조를 해야 하고 한편으로 장개석이 대만으로 갔다’고 하였다. 나는 어렸을 때 집안이 가난했고, 4명의 형제자매가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홀로 소작농을 하시면서 우리들을 키웠다. 그렇지만 수확한 식량은 지주에게 소작료를

53) 1949년부터 1951년까지, 원릉(源陵), 회동(會同), 영순(永順) 지역에 수감된 3만 5,800여 명 토적을 대상으로 교육개조를 실시하였는데 1950년 12월부터 1951년 1월까지 반혁명분자진압운동(鎮壓反革命運動) 가운데에 2만여 명이 사형에 처하게 되었고, 나머지 ‘죄형이 가볍고 행실이 좋은 자’ 1만여 명이 47군에 따라 한반도에 가서 참전하게 되었다. 이 사람 중에 100여 명이 공을 세워 상을 받았다. 湘西剿匪勝利紀念館 웹사이트(<http://www.chinamartyrs.gov.cn/LingYuanZhanShi/C119/index.html>)에서 인용.

54) 『縣委關於兩月來抗美援朝教育在帶動各項工作基礎上帶動參軍的總結報告』(1951년 3월 13일), 『縣委永久卷』, 山東省鄒都縣檔案館, 기록번호: (全宗號)-1(目錄號)-29(卷號)-90(文件頁碼)號. 侯松濤, 앞의 논문(2006), 122쪽, 재인용.

내기에도 부족하였다. 우리는 공산당 덕분에 밭과 집을 받게 되었고, 이것에 매우 감사해서 국가에서 항미원조하러 가라고 했을 때 가야 했다. 이로써 당과 모 주석에게 은혜를 갚고.⁵⁵⁾

그러나 같은 농촌빈민 출신이었던 중국군 60군단 179사단 536연대 3대대 통신원이었던 정용의(程龍義)의 회고가 더 현실을 잘 반영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입대 결정을 어렵게 내렸던 것에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고 회고하였다. 중국군에 그와 같은 사람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마을에서는 큰 회의나 작은 회의가 열렸고, 일부 가정들이 개별담화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 집에는 형제자매가 5명이 있고, 네 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아버지 혼자 힘으로 5명의 형제자매를 키우는 데에 무리가 많았고 생활이 어려웠다. 내가 동원되어 갈 적에 아버지께서는 나를 군대에 보내야 된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나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군대에 갔다. [...] 물론 그 당시 자신의 부인이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동원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것은 그시대만 가능한 일이다.⁵⁶⁾

정용의와 달리 지방정부에서의 동원명령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도 있었다. 당시 중국은 건국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도 되지 않았으며, 장기간의 전쟁의 영향으로 농민의 부담이 과거보다 더욱 무거워졌다.⁵⁷⁾ 그들은 가난했지만 학력이

55) 李亞林的 구술, 羅塵, 앞의 책, 450-451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李亞林：“我是1950年6月份報名參軍的，我去，是因為我們窮人靠共產黨毛主席才能翻身得解放，我們土地沒有的，每年租人家的田地種，打下來糧食交租子都不夠。但是靠毛主席共產黨我們翻身了，土地分來了，房子也有了，所以我說是感謝的，我們要去當兵了，抗美援朝去，去當兵，報答黨和毛主席對我們的恩情，是這樣的情況下，我報了名。”

56) 程龍義의 구술, 羅塵, 앞의 책, 16-20쪽 내용 요약. 원문은 다음과 같다.

程龍義：“大會小會開，個別家庭談話了。當時我媽媽沒有了，我是四歲時媽去世了，媽媽死掉以後父親一個人，父親一個人種田養活我一家子五個兄弟姊妹，所以生活相對艱苦。父親是想不通的，當我離開家鄉的時候，哭了，那也沒辦法，我說父親哭也沒辦法是不是，保衛祖國更重要，還是要去，沒辦法，就是這樣去了。[...] 所以抗美援朝像頭天結婚第二天就去了，老婆孩子懷孕三個月了就去的，就這個情況。拋開妻子家庭，奔赴朝鮮戰場，你說這個精神境界是這麼高的，不可理解的，那個時代有那麼個覺悟，只能這麼說。”

57) 후방지원 및 군비지출을 대비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그때 당시 농업세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애국헌금(愛國捐獻: 애국이라는 명목하에 기부한다는 것임)’운동도 벌기하였다. 강소성(江蘇) 남부의 경우에는 1949년 국가에서 징수하는 식량이 그해에 수확한 식량에 차지한 비중이 14.27%였고, 1950년에는 19.44%, 1951년에는 21.89%였다. 농민이 부담한 애국기부가 그해에 농민이 부담하는 수리건설, 민병경비, 문화교육 등

나 아무런 생계수단이 없어 생계를 이어가기가 곤란했고, 일부는 부모조차 없는 고아가 되어 노숙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군대에 들어가면 음식과 잠자리 등 기본 의식주가 보장될 수 있었다. 또한 정부에서 미군이 매우 약하다고 선전했으므로 그들이 참전하여 전쟁에서 공이라도 세우게 된다면 인생이 역전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와 같이 입대한 꼬맹이 7명이 있었는데 우리는 부모 없이 노숙생활을 하였다. 마침 21군단이 우리 서안(瑞安)에 와 있었는데, 우리는 17세가 3명, 16세가 2명, 15세가 1명, 14세의 어린아이가 1명으로 모두 군대에 입대하였다. 참전동기라면 그 당시 정치사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오직 한 가지만 바라고 들어갔다. 즉, 군대에 가면 먹을 밥이 있고 입을 옷도 생긴다는 것이었다. 우리처럼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 우리는 단지 배불리 먹기 위해 입대했다.⁵⁸⁾

미군이 전쟁터에서 습득한 중국인민지원군 제608연대 후방근무처에서 작성한 「7, 8, 9월 물가경비 청구기준에 관한 통지(中國人民志願軍第六零八團後勤處爲通知7, 8, 9月份物價報銷標準)」의 내용을 살펴보면, 7월에 일반 병사에게 1인당 지급된 수당은 한화로 2만 1,700원이었고, 소대장 및 중대장급에게 1인당 지급된 보조금은 2만 9,200원이었으며, 대대장 및 연대장급에게 1인당 지급된 보조금은 4만 1,700원이었다. 이 외에도

각종 항목 중에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에는 1950년에는 18.31%, 1951년에는 59.25%, 1952년에는 40.85%였다. 1951년에 지방에서 농업세를 올렸고, 애국기부를 발동하고 가을에 식량 정수 후에 농민들이 먹을 식량이 없어질 정도로 부담이 컸다(蘇南行署, 「深水, 常熟, 句容, 南通, 邵隄, 建湖農民負擔調查資料」, 江蘇省檔案館, 檔案號: 全宗號 3070, 長期, 案卷號1452). 부담이 과중한 나머지 농민들이 정부에 불만이 많았다.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증산연헌(增產捐獻)'은 국민당 시절에 했던 연두(捐頭)와 똑같다. 단지 이름만 바꿨을 뿐이다. 과거는 연(捐: 헌납하다)이라는데 지금은 헌(獻: 바치다)이라고 한다(現在增產捐獻和國民黨的捐頭一樣. 只是換了個(說法). 過去叫捐, 現在叫獻)라고 하였다고 한다(남구당위(南區黨委), 「蘇南農工團, 常州地委工作隊關於江陰, 句容等典型鄉村經濟情況的調查報告」, 江蘇省檔案館, 檔案號: 全宗號3006, 短期, 案卷號 363, 鐘霞, 「蘇南農村抗美援朝運動」, 『黨史研究與教學』 2006년 제1기, 2006, 재인용).

58) 孫金奎의 구술, 羅塵, 앞의 책, 311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孫金奎: “我們七個小鬼都是瑞安的, 這七個小孩呢, 沒有爹沒有娘, 吃都飽不住, 叫做流浪兒, 那時候這個21軍到我們瑞安呢, 1950年剛成立了一個炮兵團, 炮兵團後備都沒有, 所以在瑞安我們七個小鬼就進去了, 我們七個小鬼三年齡都是差不多的, 三個人是17歲, 有幾個16歲的, 15歲的, 14歲的, 都跟著部隊去了. 那時候我們年級很小 政治問題我們都不懂, 我們就是一個思想, 到部隊有飯吃, 有衣穿, 我們不到部隊我們在家裏會餓死, 是吧? 沒有爹沒有娘的, 我們生活怎麼辦? 所以那一個思想, 什麼味人民服務呢, 沒有的, 我們就是爲了吃飽, 這個意思.”

자녀의 연령에 따라 보육비(11-13만 원)가 지급되었으며, 출장비(1일당 9,300-1만 4,100원)와 야근수당(1,039원)까지 지급되었다고 한다.⁵⁹⁾ 건국 초기 중국에서는 공급제(供給制)와薪金제(薪金制) 등의 이중적인 분배제도를 사용하였고, 군대의 경우에는 공급제를 사용하였다. 공급제는 국가에서 식사, 생활용품, 거주지, 교육 등의 의식주 환경과, 보조금과 육아비까지 군인들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1952년 중국의 1인당 GDP가 겨우 54달러에 불과했는데, 그해 7월을 기준으로 1952년 일반병사 한 명당 지급되었던 연간보조금은 한화로 26만 400원 정도 되었다. 이를 1952년 당시의 환율로 계산하면 약 116.9달러였다.⁶⁰⁾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소대장 및 중대장급이면 연간 보조금이 대략 157.3달러였고, 대대장 및 연대장급이면 연간 보조금이 약 224.6달러 정도였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 금액이 당시 중국 국내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는지 설명하기 위하여 1952년 전후 중국사회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에 관해서 좀 더 언급하고자 한다. 당시 농촌의 경우에는 1952년 1인당 연간 소득이 25.59달러였다.⁶¹⁾ 도시의 경우 1955년까지 북경(北京)에서 최저생계비는 한화로 연간 11만 원이었고, 상해에서의 최저생계비는 한화로 연간 13만 3,000원이었다고 한다.⁶²⁾ 군대에서 음식과 거주, 그리고 생필품 등의 문제를 다 해결해주었기 때문에 본인이 받은 보조금은 고향에 있는 부모님에게 보내드릴 수 있었으며, 결혼하고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군대에서 적지만 육아비까지 보태주었기 때문에 당시 대부분의 중국군들은 본인들이 받은 보조금에 만족하였다.

마발천(馬發泉)의 회고에 따르면 입대하기 전 그는 땀감을 팔아서 한 달에 고작 5지아오(角)밖에 벌지 못했는데, 입대한 후에는 부대에서 한 달에 2위안씩을 주었다고 한다. 당시 돼지고기 한 근에 5편이었고 야채가 한 근에 1-2편이었다고 하면서, 그때에 2위안이면 아주 큰돈이었다고 했다. 이 보조금을 본인이 두 달간 아껴서 그중 3위안을 부모에게 보내드리면 부모님께서 매우 기뻐하셨다고 회고한 바 있다.⁶³⁾

59)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中國人民志願軍第六零八團後勤處爲通知7, 8, 9月份物價報銷標準」, 『한국전쟁기 중공군문서』 제3권(한림대학교, 1996), 506쪽.

60) 중국국가통계청(中國國家統計局), <http://data.stats.gov.cn/> 데이터.

61) 國家統計局, 「1952-1978年農民收入增長情況」, 『中國統計年鑒』(北京: 中國統計出版社, 1984).

62) 陳明遠, 『知識分子與人民幣時代』(上海: 文匯出版社, 2006), 77쪽.

그러므로 당시 중국군 개개인들의 생활상을 고려한다면, 그들이 군대에 입대하게 된 동기는 정치적 이유라기보다는 주로 경제적인 이유에서였다는 점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951년 12월에 한국전쟁에 투입된 왕월송(王月松)은 자신이 참전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우리 집은 형제가 세 명이었는데 시는 집조차 없었어. 형편이 아주 어려웠지. 나는 부모님이 말려도 지원했어. 우리 지방에서 크게 세를 이루어 나를 보내고 잔치도 하고 그랬어, 그때 아주 영광스러웠지”라고 밝힌 바 있다.⁶⁴⁾ 왕유수(王有水)도 자신이 군대에 지원한 동기에 대해서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⁶⁵⁾

집안 상황이 비교적 나은 편인데도 두덕규(杜德奎)와 동수현(董秀賢)도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다. 그들의 참전동기는 군대에서 생계수단이 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기 위한 것이었다. 두덕규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 차라리 군대에 들어가서 자동차 운전기술을 배우거나 할 수 있으면 비행기 조종기술도 배워보라’는 아버지의 건의 때문에 참전에 지원했다고 회고하였다.⁶⁶⁾ 동수현은 당시 중국의 첫 번째 여자 기차 운전수인 전계영(田桂英)을 예로 들며, 여자도 기차를 운전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공산당의 선전에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다고 하였다.⁶⁷⁾ 이와 같이 한국전

63) 馬發泉의 구술, 羅塵, 앞의 책, 388-389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馬發泉: “當時兩塊錢在社會上看起來可以的, 我兩塊錢回到部隊兩個月以後, 我節省了三塊錢, 節省三塊錢寄給我爸爸媽媽用, 他們很感動. 那個時候, 豬肉幾分錢一斤, 不到一毛, 那個都五分一斤的. 那個時候青菜一分兩分一斤, 兩塊錢很抵用的, 你看兩塊買好多東西, 我就不用, 到部隊一個牙膏我自己用三個月. 我一點點擠, 我刷牙一點點擠, 我就寄到家裏去這樣的, 他們可高興了.”

중국에서 1955년부터 화폐를 바꿔 기존의 화폐 1만 원에 새로 발급된 화폐 1위안으로 환율을 지정한 바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2위안은 새로 발급된 화폐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다. 1위안은 10지아오(角)이고, 1지아오는 10분(分)이다.

64) 王月松의 구술, 위의 책, 40-41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王月松: “我父母請我們的鄰居, 親戚勸我不要, 當兵很苦的, 我說, 我不怕, 我決心很大的, 那個時候. 我為什麼去? 我們兄弟三個, 家裏困難. 房子沒有, 住沒有地方住. 再加上當時村裏擺酒, 請酒, 村裏鑼鼓搞起來送我們, 那個時候我們很光榮的.”

65) 王有水的 구술, 위의 책, 280-281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王有水: “我父親當時沒了, 就一個母親和一個姐姐. 我是獨子. 沒辦法, 家裏困難, 還是當兵算了. 那時候沒有錢賺, 在山裏采點山貨賣賣.”

66) 杜德奎의 구술, 위의 책, 209쪽 내용 요약. 원문은 다음과 같다.

杜德奎: “那時候我爸爸, 他們也同意, 他們去當兵, 要去學技術, 學習開汽車, 或者開飛機什麼, 我爸爸說了話的, 我爸爸也同意. 你個小孩在家裏沒什麼事情的話, 書也沒得讀, 也沒什麼工作是不是, 到外面去的話有前途. 他們同意我當兵, 後來學會開汽車, 學會開飛機, 學會什麼東西了, 這麼一講, 他們也沒什麼說的, 就去吧, 前途.”

67) 董秀賢의 구술, Phoenix Satellite Television (Hong Kong), 다큐멘터리 「一個人的戰場

쟁 당시 농촌청년들이 중국군에 가입하게 된 동기는, 물론 지방정부의 선전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로 가난한 집안사정과 본인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직접적인 영향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반면 부농이나 지주 출신들에게는 공산당정부에서 전개한 한국전쟁 동원에 참여 여부가 그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부농 출신이었던 류통화(劉通和)는 ‘군대에 가지 않으면 반혁명분자가 될 것이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중국군에 자원하여 입대하게 되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⁶⁸⁾ 빈농 출신 중국군 이아림(李亞林)은 초기에는 빈농이나 중농들만 입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주나 부농들은 입대신청서를 내더라도 입대하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거나 입대를 거부당했지만, 일단 입대신청서를 내면 그들의 출신으로 인한 ‘죄’를 어느 정도 참작받을 수 있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⁶⁹⁾

물론 지방정부에서 징병계획을 완수하기 위하여 강압적으로 전쟁에 동원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마을에서는 입대하지 않으면 총살을 당할 것이라고 위협을 하거나, 부녀자들을 선전작업대(宣傳工作隊)로 조직하여 동원 대상에게 끊임없이 찾아가서 그 대상자가 입대할 때까지 설득하도록 하였다고 한다.⁷⁰⁾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항미원조운동이 전개되던 당시에 토지개혁운동과 반혁명분자진압운동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었

我的上甘嶺記憶 第一集」, 13:19.

- 68) 劉通和의 구술, 周琇環·張世瑛·馬國正, 앞의 책, 324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劉通和: “我家有一個哥哥, 一個父親, 三個勞動力, 一定要走一個, 不走就是反革命, 大家就給你扣帽子, 逼著你出來.”
- 69) 李亞林的 인터뷰, 羅塵, 앞의 책, 790-791쪽 내용 정리 요약. 원문은 다음과 같다.
李亞林: “報名的人很多, 地主老財也去的, 他去政府有這麼一個規定, 像你這樣的去報名呢, 不管用不用到就是你家裏本來要拿來批鬥的, 可以免除批鬥, 比如說要關起來的, 可以不關, 所以有這個當時政策.”
- 70) 劉思英의 구술, 周琇環·張世瑛·馬國正, 앞의 책, 172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劉思英: “那時候不出來不行, 名義是志願軍, 你不願意就要槍斃你, 那時候有這個口號, 反正叫你去了爲止, 那時候就是這樣.”
李鴻範의 구술, 周琇環·張世瑛·馬國正, 위의 책, 122-123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李鴻範: “但是中共在鄉村征兵的時候, 你自願也好, 不自願也好, 不去不行. 你自願也要去, 不自願也要去, 有的是召集大家到鄉村裏面開會, 集合起來, 宣傳說美國怎麼樣, 到哪裏了, 我們要去救火! 我們一批沒有去開會的, 他召集婦女坐到你家裏來, 坐成一圈, 問你有什麼問題? 爲什麼不去? 這會兒走了, 那會兒又來了, 你非去不行, 就是要說服你非去不行.”
蔣鴻慶의 구술, 周琇環·張世瑛·馬國正, 위의 책, 108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蔣鴻慶: “他們動員, 幹部動員集合叫你去, 坐在炕上, 我們山東有炕, 接到通知要發言, 就這樣參加軍隊, 參加了八路軍.”

으므로, 정부의 동원명령에 대항하여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하면 마치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치부되어 본인이 속한 집단에서 소외당하거나 생활에 타격을 받았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 이후 대만으로 송환된 중국군 포로 양만복(楊萬福)은 ‘그들이 우리를 인민지원군이라고 불렀는데 우리 중에 누가 자원해서 군대에 갔다고 얘기했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자원해서 군대에 가는 거야?’라고 회고하면서 자신 또한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입대하게 되었다는 투로 말했다.⁷¹⁾

군인들 중 경제적 이유 외에 다른 동기로 자원하여 참전하게 된 유형이 아주 없었던 것만은 아니다. 이런 유형 군인들의 출신은 주로 학생, 노동자, 기술자, 수공업자, 소상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950년 12월 1일, 중앙인민혁명군사위원회 및 중앙인민정부정무원에서 공포한 「청년학생 및 청년노동자를 모집하여 각종 군사간부학교에 입학하게 하는 연합결정(關於招收青年學生青年工人參加各種軍事幹部學校的聯合決定)」에서 규정한 모집 대상은 ‘17-25세의 중학교 2학년 이상 청년학생 및 고등소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동자 중 건강한 자’라고 되어 있고, 이어서 1951년 6월 24일에 중앙인민정부정무원에서 공포한 「각종군사간부학교 학생 모집에 관한 결정(各種軍事幹部學校招收學生的決定)」에서는 ‘대학 1-2년 학생, 나이가 17세 이상 고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 그리고 고등소학교 졸업생’으로 규정되어 있었다.⁷²⁾ 1953년 12월 전국군사계통 고급간부회의(全國軍事系統高級幹部會議)에서 총간부부(總幹部部) 부부장 뇌전주(賴傳珠)가 ‘항미원조 3년 이래 지식인 33만 7,383명을 군대에 편입시켰다’고 밝힌 적이 있었다. 학력수준이 어느 정도 된 학생 및 노동자들을 군대에서 흡수한 것은 중국군 간부를 양성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었고, 그중 일부가 한국전쟁에 보내져서 중국군 내 통역, 문화교원, 종군참모 그리고 포로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되었다.

학생들이 군대에 입대하여 참전하게 된 동기는 비교적 단순하였다. 중국본토로 송환된 당시 중국군포로수용소 중국군 포로 대표인 장택석(張澤石)은 청화대학교 물리학과 대학생이었다. 그는 자신이 참전한 동기를

71) 楊萬福의 구술, 周琇環·張世瑛·馬國正, 위의 책, 89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楊萬福：“參加志願軍的時候，我們都加入共產黨的部隊，他們那時候部隊是自願的嘛，他們講都是自願的，哪個是自願的啊？誰說是自願的？誰願意去自願？他們都說我們是自願的。”

72) 劉巖, 「抗美援朝期間知識青年從軍的確切人數」, 『軍事史林』 제10권(2014), 26쪽.

‘하룻송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初生牛犢不怕虎)’는 속담에 비유하여 설명하면서, ‘젊은 학생으로서 상당한 로맨틱한 생각을 가지고 참전하였다’라고 회고한 바 있다.⁷³⁾ 그는 중국 공산당의 선전을 접하고 나서, 미제국주의가 북한을 침략하고 있으며, 곧 미제국주의가 일본을 침략했던 것처럼 한반도를 넘어 중국을 침략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청년으로서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열정으로 군대에 입대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청년학생들이 참전한 동기가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공산당에 필요한 인재로서 참전을 통해 자신의 개인 가치를 더 높이는 것이다. 둘째, 청년학생들이 당시 고등학교나 대학교까지 다녔다면 그들의 집안이 대부분 부유한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즉, 가정출신성분 면에서 지주, 부농, 자본가, 소상인 등의 출신이 많았을 것이다. 참전을 통해 그들의 출신성분에 영향을 덜 받아 자신의 사회성분을 상승시키려는 동기도 있었을 것이다.

학생들과 달리 노동자, 기술자, 수공업자, 그리고 소상인의 경우에는 여러 해 계속된 전쟁으로 실업자가 되어 생활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고, 기술자들조차도 취직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그들은 농민들과는 달리 논밭마저도 없었다. 오감생(吳淦生)은 자신의 참전동기에 대해서 전쟁으로 실업자가 되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마당에 마침 병단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한다고 해서 입학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군사교육을 받은 후 한국전쟁에 보내졌다고 하였다.⁷⁴⁾ 심지어 어떤 군인 가정에서는 형제가 모두 4명인데 그중 3명이 중국군에 입대하여 전쟁에 참전하기도 하였다. 그 까닭은 역시 집안 상황이 가난하였기 때문이다.⁷⁵⁾

73) 張澤石, 『我的韓國戰爭』(北京: 金城出版社, 2011), 3쪽.

74) 吳淦生의 구술, 羅塵, 앞의 책, 62-63쪽 요약. 원문은 다음과 같다.

吳淦生: “家裏生活非常非常苦難的, 貧困的很, 生病沒錢醫, 父親44歲就死了, 1944年. 我當時已經失學了, 父親死了以後沒辦法, 學費交不起了, 所以這樣子到溫州做工了, 1945年一直到1949年都是在棉織布廠做工, 是這樣, 1949年解放以後, 面紗, 黃金, 油, 這些國家控制, 軍事管制, 軍管物資非常困難, 工廠有倒閉的, 倒閉後我姐夫在上海, 我就投奔姐姐, 姐夫, 當時在上海也是做工, 準備到他那裏找工作的. 但是我自己失業了沒辦法, 那所以看到招生, 就是說華東軍區軍政大學招生呢, 就報考軍校了, 後來朝鮮戰爭爆發以後呢, 學校變成了九兵團.”

75) 許秀夫의 구술, 위의 책 204-205쪽 내용 요약. 원문은 다음과 같다.

許秀夫: “我家兄弟四人, 三哥是共產黨兵, 二哥是國民黨兵, 當時都在朝鮮戰場. 我站在我姑姑開的小店, 部隊的人問: 小鬼, 當兵去不去? 去! 去他就跟當地政府聯系, 經過政府呢, 他部隊放幾匹馬到我們居民區, 敲鑼打鼓送我倒部隊去, 就是這麼個過程.”

2. 중국군의 구성

앞에서 중국군의 동원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중국군의 구성은 상당히 복잡하다. 아직까지 중국군의 전체 구성에 관한 사료가 발굴되지 않았지만, 미군이 전쟁터에서 습득하였던 중국군 '정치질량통계표(政治質量統計表)'를 살펴보면 중국군 내부에서는 군인의 출신지역, 연령, 성별, 교육수준 등 개인적인 배경은 물론, 군인이 입대하기 전의 가정출신성분, 본인의 사회성분, 군인이면 군인의 군령, 당원이면 당원의 당령(黨齡) 등 자세한 통계기준으로 군인을 분류하고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⁷⁶⁾

우선 가정출신성분으로 중국군을 분류하면 노동자·고농·빈농·빈민·중농·수공업자·자유직업자·직원·소상인·자본가·부농·지주로 나눌 수 있고, 입대하기 전의 본인의 사회성분으로 구분하면 노동자·고농·빈농·중농·수공업자·자유직업자·직원·학생·구군인·종교직업자·유민·자본가·부농·지주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군인들의 군령대로 중국군을 분류하면 크게 토지혁명 시기에 가입한 자, 항일전쟁 시기에 가입한 자, 그리고 해방전쟁 시기(국공내전 시기)에 가입한 자로 나눌 수 있다. 그중에 해방전쟁 시기에 가입한 자들은 다시 가입했던 해로 세분화할 수 있다. 즉, 1945년 8월 15일부터 1946년 6월에 가입한 자, 1946년 7월부터 1947년 12월에 가입한 자, 1948년, 1949년, 1950년, 1951년에 가입한 자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해방전쟁 시기에 가입한 자의 경우에는 가입하게 된 계기에 따라 참군(자동적으로 군대에 가입), 의거(전향된 군인), 투항, 생포, 전역(轉役), 합편(중공군으로 개편된 국민당군대)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군인의 당령(黨齡)대로 나누면, 중국군을 크게 대혁명 시기부터 1927년 7월까지 공산당에 가입한 자, 토지혁명 시기에 공산당에 가입한 자, 항일전쟁 시기 공산당에 가입한 자, 1936년 12월 12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공산당에 가입한 자, 그리고 해방전쟁 시기에 공산당에 가입한 자로 나눌 수 있다. 그중에 해방전쟁 시기에 가입한 자를 역시 위와 같이 1945년 8월 15일부터 1946년 6월에 가입한 자, 1946년 7월부터 1947년 12월에 가입한 자, 1948년, 1949년, 1950년, 1951년에 가입한

76)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정치질량통계표」 등, 『한국전쟁기 중공군문서』 제4권 (한림대학교, 1996), 551-565쪽.

자로 나눌 수 있다. 이 외에도 당원후보들이 존재하였다.

중국군의 교육수준, 연령, 그리고 성별로 분류하자면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중국군을 문맹, 초등소학이나 초등소학에 상당한 자, 고등소학이나 고등소학에 상당한 자, 중학교나 중학교에 상당한 자, 고등학교 이상으로 나눌 수 있고, 연령의 경우에는 18세 이하, 18-20세, 21-25세, 26-35세, 36세-44세, 45세 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고 성별의 경우 남, 여로 분류할 수 있다.

중국군의 출신지역으로 구분하자면 주로 화북지역(내몽골, 하북, 산서, 평원, 찰합이, 수원), 동부지역(요동, 요서, 길림, 송강, 흑룡강, 열하), 서북지역(감숙, 섬서, 녕하, 신강), 서남지역(사천, 운남, 귀주, 서강, 티베트), 중남지역(호북, 호남, 하남, 강서, 광둥, 광서), 화동지역(강소, 산둥, 철강, 안휘, 복건, 대만)으로 나눌 수 있다.

1951년 3월 20일에 중국 장사에서 통계된 중국군 경위연(警衛連: 경비중대)의 '정치질량통계표(政治質量統計表)(A)'와, 같은 해 6월 16일 석옥동(石玉洞)에서 작성된 47군 139사단 416연대 경위연의 '정치질량통계표(B)'에 관한 극비(絕密)자료가 있다. 이런 정치질량통계표는 한 달에 한 번씩 통계를 내어 작성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중국군에서는 정치공작을 상당히 중요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전국단위로 전개된 반혁명분자진압운동 및 산반오반운동이 군대 내부에서도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산당이 중국군을 조성할 당시 제50군단만 제외하고 그 후에 새로 공산당군대에 가입하게 된 전국민당군 사병, 장교, 사관학교 학생, 대학생, 고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 청년노동자, 농민 등을 균등하게 기존의 군대에 편입시켰다. 비록 이 자료는 일부 중국군에만 국한된 통계자료로 남게 되었지만, 이를 통해서 중국군의 구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정치질량통계표 내에 '가정출신 및 입대하기 전에 본인의 사회성분에 관한 통계(家庭出身及入伍前本人社會成份統計表)'라는 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A중대의 B중대의 가정출신성분을 보면 A중대 168명 중에 자유업 2명, 소상공인 3명, 노동자 2명, 빈민 1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농촌 출신이었으며, B중대 136명 중에서는 자유업 1명, 상인 1명, 빈민 7명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가 농촌 출신이었다. 농촌 출신 중에서는 빈농, 고농, 중농 출신이 가장 많았고, 이 외에 지주, 부농이 A중대에

각 1명, 2명이 있고, B중대에는 부농이 단 1명밖에 없었다. 이것으로 당시 중국군에 농촌 출신이 많았고, 그중에 빈농, 고농, 중농이 가장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원 여부의 경우에는 A중대의 168명 중에 50명이 당원이고, 15명이 공청단(共靑團) 단원이기 때문에 거의 전체 수의 38%를 차지함으로써 공산당조직에 직접 예속된 자가 38%나 되었다. B중대는 136명 중에 당원이 37명이고, 14명이 단원이기 때문에 전체 수의 약 36%가 공산당조직에 직접 예속되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입대하기 전에 본인의 사회성분을 봤을 때 A중대에는 학생 12명, 노동자 14명, 수공업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농촌 출신(84%)이었다. B중대 역시 자유업자 4명과 학생 6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농촌 출신(92%)이었다.

표1을 보면 당원 모두가 노동자 및 농민 출신이었고, 공청 단원 중에 농촌 출신자 이외에 학생 및 자유업자 출신이 간혹 있었다.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은 가정출신성분과 입대하기 전 본인의 사회성분 간의 차이성 문제이다. 즉, 가정출신성분보다 본인의 사회성분이 이른바 착취 계급에 속한 인원수가 적었고, 반면에 피착취계급에 속한 인원수가 많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A중대 가정출신성분에 부농, 지주에 속한 자가 총 5명이 있었는데 본인의 사회성분에서 위와 같은 계급에 속한 자는 1명밖에 없었다. 반면 빈민의 경우에는 가정출신성분이 빈민에 속한 자가 1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본인의 사회성분이 빈민에 속한 자가 15명이나 되었다. 학생이라는 사회성분이 이 관계를 보다 잘 설명하고 있다. 집에서 학생을 키울 만한 재력이 있으면 이 학생의 가정출신성분은 착취계급일 가능성이 컸을 텐데, 본인의 사회성분을 학생으로 함으로써 자신의 본래 가정출신성분으로 인해 받을 영향을 최대한 덜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가정출신성분은 원래 가정에서의 경제상황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인위적으로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입대하기 전의 사회성분을 되도록 공산당에서 선호하는 계급으로 하는 자가 많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위의 사실은 비록 2개의 중대에만 해당된 것이지만 이것으로 중국군은 대부분 농촌 출신이었고, 경비임무를 담당하는 중대로서 공산당원과 공청단원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만으로는 전체 중국군의 당원 및 단원의 비율을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당원 및

표1-가정출신성분과 입대하기 전 본인의 사회성분에 관한 통계⁷⁷⁾ (단위: 명)

| | | 가정출신성분 | | | | | | | | | | | | 합계 |
|---|-----|--------|----|----|----|----|------|-------|----|-----|-----|----|----|-----|
| | | 노동자 | 고농 | 빈농 | 빈민 | 중농 | 수공업자 | 자유직업자 | 직원 | 소상인 | 자본가 | 부농 | 지주 | |
| A | 총인원 | 2 | 34 | 90 | 10 | 24 | | 2 | | 3 | | 2 | 1 | 168 |
| | 당원 | 1 | 11 | 27 | 3 | 8 | | | | | | | | 50 |
| | 단원 | | 1 | 9 | 1 | 2 | | 2 | | | | | | 15 |
| B | 총인원 | | 26 | 80 | 7 | 20 | | 1 | | 1 | | 1 | | 136 |
| | 당원 | | 8 | 20 | 3 | 5 | | | | 1 | | | | 37 |
| | 단원 | | 1 | 9 | 2 | 1 | | 1 | | | | | | 14 |

| | | 입대하기 전 본인의 사회성분 | | | | | | | | | | | | | | 합계 |
|---|-----|-----------------|----|----|----|----|------|-------|----|----|-----|-------|----|-----|----|-----|
| | | 노동자 | 고농 | 빈농 | 빈민 | 중농 | 수공업자 | 자유직업자 | 직원 | 학생 | 구군인 | 종교직업자 | 유민 | 자본가 | 부농 | |
| A | 총인원 | 14 | 30 | 75 | 15 | 20 | 1 | | | 12 | | | | | 1 | 168 |
| | 당원 | 4 | 10 | 22 | 5 | 8 | 1 | | | | | | | | | 50 |
| | 단원 | 2 | 1 | 6 | 1 | 1 | | | | 4 | | | | | | 15 |
| B | 총인원 | 11 | 23 | 69 | 8 | 14 | | 4 | | 6 | | | | 1 | | 136 |
| | 당원 | 3 | 7 | 20 | 2 | 4 | | 1 | | | | | | | | 37 |
| | 단원 | 1 | 1 | 7 | 2 | | | 2 | | 1 | | | | | | 14 |

단원의 출신이 농민 및 노동자, 학생, 그리고 일부 자유업자로 한정되어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중국군 내 당원이나 단원의 비율이 갈수록 줄어든 것으로 보아, 공산당이 국공내전에서 역전한 이후에 공산당조직에 가입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항일전쟁 시기부터 중공군에 가입한 자는 모두 당원이었고, A중대의 경우에는 1948년 국공내전 역전 이전에 가입한 자 중에 당원이나 단원의 비율이 71%, 80%로 높았는데 1948년 후에는 53%, 35.8%로 떨어졌다. 1950년과 1951년에 가입한 자 중에서는 당원이나 단원이 아예 없었다. B중대도 비슷하였다. 역전 이전에 군대에 가입한 자 중에는 당원이나 단원의 비율이 80%, 76.4%로 높았는데 1948년 이후 60.8%, 34%로 떨어져서 1950년과 1951년에 가입한

77)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정치질량통계표」 등, 위의 책, 551-565쪽.

자 중에 당원이거나 단원이 아예 없었다. 중국군 중에 반공경향을 가진 자가 있어 공산당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가 있을 가능성도 물론 있었다.

그러나 초기에는 군대 내에서 본인의 진로를 위해, 이후에는 군대 내에서 전개된 정치운동에서 타격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공산당에 가입하는 것은 유리했을 것이다. 당원이거나 단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감한 것은 공산당에 가입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당에서 신뢰를 얻는 것이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데에 중요한 조건이 되어, 이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자들은 공산당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 1948년부터는 단원의 인원수에 대해서도 통계자료가 존재하는 것은 이 시기부터 중국군에 학생과 도시 빈민층 청년을 군대로 유치한 사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2에 제시한 중국군 중 공산당원의 당령에 관한 ‘당령통계표(黨齡統計表)’를 보면 대다수의 당원이 1948-1950년에 공산당에 가입하였다. 이 추세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공산당의 국공내전 역전 이후 군대에 가입한 자가 공산당조직에 가입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사실과 정반대이다. 이것은 군대 내에서의 정치운동의 전개 및 중국군의 동원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국가군대 건설에 필요한 인재들을 공산당원으로 흡수하고, 또한 대량의 전(前) 국민당 출신 병사가 편입된 군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1948년

표2- 당령 통계표(黨齡統計表) (단위: 명)

| | 당령(黨齡) | | | | | | | | | | | |
|-----|----------------------------|----------------|----------------|---|----------------|------------------|-------------|--------------|------|----|----|----------|
| | 대혁명 시기 1927. 7월 말 | 토지 혁명 시기 | 항일 전쟁 시기 | 항일 전쟁 시기 12·12 사변 1945. 8.15. | 해방전쟁 시기 | | | | | 소계 | 합계 | 당원 후보 |
| | | | | | 1945. 8.15. | 1946. 7. 1 | 1946. 6. | 1947. 12. | 1948 | | | |
| A | | | | | 3 | 9 | 12 | 18 | 2 | 44 | 44 | 6 |
| B | | | | | 1 | 12 | 8 | 9 | 2 | 32 | 32 | 5 |
| 총계 | | | | | | | | | | | | |
| 백분율 | | | | | | | | | | | | |

과 1949년에 군대에서 공산당원을 많이 선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군대 내부에 당원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 시기에는 정권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군인들보다 군 내부에서 그동안 숙련된 자들을 공산당원으로 선발하였다. 군대 내에서 전개된 정치운동으로 인해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갈수록 각 군인의 사회성분 및 배경에 따라 한정적으로 주어지게 되었고, 이 때문에 당원인지의 여부는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표3에 제시한 중국군 '군령 및 내력에 관한 통계표(軍齡來歷統計表)'를 살펴보면 중국군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첫째, A중대의 168명 중에 국공내전 이전부터 공산당에 예속된 사람은 3명뿐이었고, B중대의 136명 중에 국공내전 이전부터 공산당에 예속된 사람은 1명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국공내전(표3의 자료대로 해방전쟁으로 표기되어 있음) 시기에 군대에 가입하게 된 사람들이었다. 내전 시기에 흡수된 병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3-군령 및 내력에 관한 통계표(軍齡來歷統計表) (단위: 명)

| | 군령 | | | | | | | | | | 해방전쟁 시기 입대 인원 내력 ⁷⁸⁾ | | | | | | |
|---|----------------|----------------|-----------|----------|--------|---------|------|------|------|-----|---------------------------------|----|----|----|----------|-----|-----|
| | 토지 혁명 시기 | 항일 전쟁 시기 | 해방전쟁 시기 | | | | | | | 합계 | 參軍 | 起義 | 投誠 | 俘虜 | 地方 轉業 | 合編 | 합계 |
| | | | 1945.8.15 | 1946.7.1 | 1946.6 | 1947.12 | 1948 | 1949 | 1950 | | | | | | | | |
| A | 총인원 | 3 | 14 | 20 | 32 | 53 | | | 46 | 165 | 168 | 93 | | | 58 | 14 | 165 |
| | 당원 | 3 | 10 | 16 | 15 | 6 | | | 47 | 50 | 31 | | | 14 | 5 | 50 | |
| | 단원 | | | | 2 | 13 | | | 15 | 15 | 2 | | | 10 | 3 | 15 | |
| B | 총인원 | 1 | 10 | 17 | 23 | 43 | 5 | 37 | 135 | 136 | 74 | | | 48 | 13 | 135 | |
| | 당원 | 1 | 8 | 13 | 11 | 4 | | | 36 | 37 | 22 | | | 11 | 3 | 36 | |
| | 단원 | | | | 3 | 11 | | | 14 | 14 | | | | 11 | 3 | 14 | |

주: 토지혁명 시기: 1927. 8. 1.-1936. 12. 12.; 항일전쟁 시기: 1936. 12. 12.-1945. 8. 15.

78) 參軍: 자진입대자
 起義: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귀순한 자
 投誠: 전쟁이 시작한 후에 투항한 자
 俘虜: 생포된 자
 地方轉業: 지방으로 전역했다가 다시 입대한 자
 合編: 귀순이나 투항한 후 이미 공산당군에 재편된 자

로 살펴보면 1945년 8월 15일부터 1946년 6월까지 A중대에 14명, B중대에 10명, 1946년 7월부터 1947년 12월까지 A중대에 20명, B중대에 17명, 공산당이 역전되고 전쟁이 부분적으로 종료될 때인 1948년에는 A중대에 32명, B중대에 23명, 공산당이 전국의 대부분 지역을 점령하고 정권까지 세운 1949년에는 A중대에 53명, B중대에 43명, 한국전쟁이 발발된 1년 후인 1951년에는 A중대에 46명, B중대에 37명이 입대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A중대는 168명 중에 165명이 국공내전 시기에 입대했고, B중대는 136명 중에 135명이 이 시기에 입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대부분 중국군의 군령이 3년 이하로 짧았고, 순수한 중공군 출신자가 중국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국공내전 기간에 입대한 군인들은 징병된 자와 내전에서 공산당에 생포되거나 투항하여 공산당군대에 편입된 자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A중대의 경우에는 징병된 자가 93명, 국민당군 출신이었는데 생포되어 입대하게 된 자가 58명, 투항하여 편입된 자가 17명이었다. B중대의 경우에는 징병된 자가 74명, 국민당군 출신 중에 생포되어 입대하게 된 자가 48명, 투항하여 공산당군에 편입된 자가 13명이었다. 그러므로 중국군의 주력은 국공내전 시기에 징병된 자와 국민당군 출신자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민당군 출신자 중에는 중국군에 편입된 계기가 투항보다는 생포가 더욱 많았다.

표4를 보면 대다수 중국군의 교육수준이 많이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중대 168명 가운데 문맹과 초등소학(초등학교 1, 2, 3학년)이나

표4- 교육수준, 연령, 성별에 관한 통계표 (단위: 명)

| | | 교육수준 | | | | | | 연령 | | | | | | 성별 | | 합계 |
|---|-----|------|------------------|------------------|--------------------|----------------|-----|----------|---------------|---------------|---------------|---------------|----------|----|---|----|
| | | 문맹 | 초소나 초소에 상당 | 고소나 고소에 상당 | 중학교나 중학교에 상당 | 고등 학교 이상 | 합계 | 17 이하 | 18 20 | 21 25 | 26 35 | 36 44 | 45 이상 | 합계 | 남 | |
| A | 총인원 | 64 | 78 | 17 | 5 | 4 | 168 | 4 | 28 | 63 | 71 | 2 | 168 | | | |
| | 당원 | 18 | 29 | 3 | | | 50 | | 1 | 13 | 34 | 2 | 50 | | | |
| | 단원 | 3 | 8 | 1 | | 3 | 15 | | 3 | 10 | 2 | | 15 | | | |
| B | 총인원 | 64 | 55 | 12 | 4 | 1 | 136 | 6 | 23 | 56 | 49 | 2 | 136 | | | |
| | 당원 | 19 | 16 | 2 | | | 37 | | | 13 | 22 | 2 | 37 | | | |
| | 단원 | 4 | 8 | 1 | | 1 | 14 | | 2 | 10 | 2 | | 14 | | | |

초등소학 상당에 해당하는 자가 각 64명, 78명이고, 전체의 38%, 46.4%를 차지하였다. B중대의 경우에는 136명 가운데 문맹과 초등소학이나 초등소학 상당에 해당한 자가 각 64명, 55명이고, 이들은 전체의 47%, 40%를 차지하였다. 이것으로 중국군 중에 80%가 넘는 병사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문맹에 불과한 학력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등학교를 나온 자는 각 4명, 1명뿐이었다. 특히 당원의 교육수준은 평균보다 더욱 낮았다. A중대의 경우에는 50명 당원 중에 47명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문맹에 해당하고 전체 당원의 94%를 차지하였다. B중대 역시 94.5% 정도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당시 중국군들은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아 중국군 포로들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을 것이며,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선전선동에 쉽게 휩쓸렸을 것이다. 연령으로 보았을 때 중국군의 대부분(95% 정도)이 18-35세에 속하고, 17세 이하와 36세 이상은 극소수이다. 이 외에 당원의 연령은 보통 21-35세 정도이며 그중에 26-35세가 다수였다.

표5- 본적 통계표

(단위: 명)

| | 회북지역 | | | | | | | 동북지역 | | | | | | |
|----|------|----|----|----|-----|----|----|------|----|----|----|-----|----|----|
| | 내몽골 | 허북 | 산서 | 평원 | 철합이 | 수원 | 소계 | 요동 | 요서 | 길림 | 송강 | 흑룡강 | 열하 | 소계 |
| A | | 4 | 2 | 1 | | 3 | 10 | 2 | 5 | 16 | 12 | 3 | 6 | 44 |
| B | | 3 | 1 | 1 | | 3 | 8 | | 4 | 11 | 10 | 4 | 4 | 33 |
| 총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북지역 | | | | | | 서남지역 | | | | | |
|----|------|----|----|----|----|----|------|----|----|----|-----|----|
| | 감숙 | 섬서 | 녕하 | 청해 | 신강 | 소계 | 사천 | 운남 | 귀주 | 서강 | 티베트 | 소계 |
| A | | | | | | | 24 | 5 | | | | 29 |
| B | | | | | | | 21 | 1 | | | | 22 |
| 총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남지역 | | | | | | | 화둥지역 | | | | | | 합계 | | | |
|----|------|----|----|----|----|----|----|------|----|----|----|----|----|----|----|--|-----|
| | 호북 | 호남 | 허남 | 강서 | 광둥 | 광서 | 소계 | 강소 | 산둥 | 철강 | 안휘 | 복건 | 대만 | | 소계 | | |
| A | 4 | 62 | 5 | | 2 | 1 | 74 | 1 | 6 | 3 | | 1 | | 11 | | | 168 |
| B | 3 | 54 | 6 | | 2 | 1 | 66 | 1 | 3 | 2 | | 1 | | 7 | | | 136 |
| 총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지막으로 표5에 제시한 대대의 출신지역에 관한 통계를 살펴본다. 중국에서 군대를 과견할 때 한 지역에서만 보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적에 관한 통계는 다른 통계보다 상당히 단편성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이 대대의 본적에 관한 통계의 특징에 대해서만 설명하고자 한다. A대대는 화북지역 10명, 동북지역 44명, 서북지역 0명, 서남지역 29명, 중남지역 74명, 화동지역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B대대는 화북지역 8명, 동북지역 33명, 서북지역 0명, 서남지역 22명, 중남지역 66명, 화동지역 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출신지역의 비율은 서로 다르지만 군대에는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골고루 출신자가 있다는 것은 국공내전이 전국 단위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점령한 지역들에서 병력을 차출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통계에서 중남지역 출신자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이 2개의 대대가 주로 중남지역에서 징병을 했기 때문에, 해당 대대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IV. 맺음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군은 ‘항미원조, 보가위국’이라는 구호만으로 동원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중국 국내에서는 공산당의 참전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여려고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였다. 한국전쟁 발발 당시에 공산당정권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에 전쟁에 군인들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정치운동을 동시에 전개하였다. 그러므로 중국군이 동원된 배경에는 당시 중국사회 전체에서 전개된 정치운동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농촌에서 전개된 토지개혁운동과 도시에서 전개된 반혁명분자진압운동을 통해서 공산당정권에서 중국사회에 ‘계급성분’이라는 신분제도를 도입시켰고, 자신의 계급성분을 상승시키려는 자들에게는 입대하여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또한 빈곤한 도시민이나 공산당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토지, 가게, 공장 등의 경제수단이 없어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거나 심지어 반혁명분자로 취급되어 자신의 생명을 보전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참전은 그들에게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러므로 중국군의 참전동기에는

상당히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계산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에서 동원된 중국군의 구성도 매우 복잡하다. 그들의 사회·경제적인 배경이 다를 뿐만 아니라 공산당이나 공산당정권에 대한 인식도 다양하였다. 공산당원이나 공청단원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공산당에 대한 인식마저 다양한 이 군대를 ‘중공군’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자원입대의 형태도 존재하지만 강제 또는 반강제로 동원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인 민지원군’이라는 호칭 역시 적당하지 않다. 오히려 ‘중국군’이라는 명칭이 앞서 언급한 그들의 정체성을 잘 반영한 합당한 명칭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다룬 주제는 아니지만 한국전쟁 중국군 포로 가운데 2/3가 넘는 포로가 중국본토가 아닌 대만을 선택한 것은 중국군의 구성 자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박두복, 『한국전쟁과 중국』. 백산서당, 2001.
- 박영실, 『중국인민지원군과 북중관계』. 선인, 2012.
-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선인, 2000.
-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한국전쟁기 중공군문서 3』. 한림대학교, 1996.
-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抗美援朝戰爭史』 第1卷.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2000.
- 羅塵, 『朝鮮戰場親歷記-志願軍老兵口述實錄』. 南京: 鳳凰文藝出版社, 2015.
- 傅胃湧, 『1949年中國知識分子的私人記錄』. 武漢: 長江文藝出版社, 2005.
- 徐焰, 『毛澤東與抗美援朝』. 北京: 解放軍出版社, 2000.
- 宋連生, 『抗美援朝再回首』. 昆明: 雲南人民出版社, 2002.
- 沈志華, 『朝鮮戰爭: 俄國檔案館的機密文件』.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2003.
- _____, 『毛澤東·斯大林與朝鮮戰爭』. 廣州: 廣東人民出版社, 2015.
- 張澤石, 『我的韓國戰爭』. 北京: 金城出版社, 2011.
- 齊德學, 『巨人的較量-抗美援朝高層決策和指導』. 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9.
- 周琇環·張世瑛·馬國正, 『韓戰反共義士訪談錄』. 臺北: 國史館, 2013.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周恩來軍事文選』. 北京: 人民出版社, 1997.
- _____, 『建國以來毛澤東軍事文稿』.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10.
- 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戰爭政治工作經驗總結編委會, 『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戰爭政治工作』. 北京: 解放軍出版社, 1985.
- 陳明遠, 『知識分子與人民幣時代』. 上海: 文匯出版社, 2006.
- 洪學智, 『洪學智回憶錄』. 北京: 解放軍出版社, 2000.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The making of the Sino-American Confront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2. 논문

- 김옥준, 「중국의 한국전 참전이 중국 국내정치통합에 미친 영향」. 『대한정치학회보』 15권 3호, 2008, 253-272쪽.
- 沈志華, 「林彪爲什麼沒有出征朝鮮?」. 『各界』 2013年 2期, 2013, 15-18쪽.
- 劉巖, 「抗美援朝期間知識青年從軍的確切人數」. 『軍事史林』 제10권, 2014, 26-27쪽.

鐘霞, 「蘇南農村抗美援朝運動」. 『黨史研究與教學』 2006년 제1期, 2006, 54-60쪽.
侯松濤, 『抗美援朝運動中的社會動員』. 中共中央黨校博士學位論文, 2006.
_____, 「中共新聞史研究史料資源的比較討論-以抗美援朝運動為例」. 青年黨史
學者論壇, 2015.

3. 간행물

《人民日報》, 「朝鮮人民爲擊退進犯者而奮鬥」. 1950년 6월 27일자.
_____, 「周恩來外長駁斥杜魯門1950年6月27日聲明的聲明」. 1950년 6월 28
일자.
_____, 「戰爭與和平 答張家萌君」. 1950년 9월 18일자.
_____, 「唐山專區抗美援朝運動初步經驗(1950년 11월 29일)」. 1950년 12월
12일자.
_____, 「農村宣傳的幾點體會」. 1951년 1월 14일자.

4. 홈페이지

<http://data.stats.gov.cn/>

<http://www.chinamartyrs.gov.cn/LingYuanZhanShi/C119/index.html>

5. 기타 자료

Phoenix Satellite Television (Hong Kong), 다큐멘터리 「一個人的戰場 我的上甘嶺
記憶 第一集」.

국 문 초 록

이 글은 한국전쟁 시기 중국군의 참전과 동원 유형, 구성에 관한 연구이다. 한국전쟁 기간 ‘항미원조, 보가위국(抗美援朝, 保家衛國)’이라는 구호 아래 중국에서 선후 240만 명이나 되는 병력을 ‘중국인민지원군’의 이름으로 전쟁에 투입시켰다. 그러나 정권을 세운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던 공산당지도부에 사회·경제질서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던 민중을 동원하여 군대에 입대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정권의 안정을 확보하고 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공산당에서 토지개혁운동(土地改革運動), 반혁명분자진압운동(反革命分子鎮壓運動), 항미원조운동(抗美援朝運動) 등의 운동을 발동하였는데 중국군은 바로 이와 같은 정치운동 속에서 동원되었다. 중국군의 입대동기에 ‘항미원조, 보가위국’이라는 큰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는 현실적인 정치 및 경제적인 이익이 더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중국군의 참전동기가 다양한 만큼 그 군대 구성도 복잡하였다.

투고일 2016. 9. 21.

심사일 2016. 11. 7.

게재 확정일 2016. 11. 14.

주제어(keyword) 한국전쟁(Korean War), 중국군(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동원(mobilization), 참전 동기(motivation to join the army.), 군대 구성(force structure)

Abstracts

A Study on Chinese People's Volunteers' Mobilization during the Korean War

Chen, Zhuo

This paper investigates the mobilization and structure of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during the Korean War. More than 2.4 million people were trooped into the war under the name of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with the slogan '抗美援朝, 保家衛國 (Resist America, support Korea, protect our homes and defend our country)'. However, the process of mobilization of people who were expecting the restoration of social and economic order after the long war time was hard for the Chinese Communist government, which was established just a year before. In order to consolidate its power and prepare for the war, the communist government launched "Movement of Land Reform" (土地改革運動), the movement to suppress counterrevolutionaries (反革命分子鎮壓運動), and "Resist America, Aid Korea Campaign" (抗美援朝運動). Chinese People's Volunteers were mobilized in such political environment. In fact, real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probably had mor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ssue of motivation to join the army, than the slogan of '抗美援朝, 保家衛國'. Since the motivations to join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were varied, its structure was also complicated.

